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6.

발 의 자 : 김두관 · 김정협 · 김정호
인재근 · 홍익표 · 김주영
이원택 · 윤영덕 · 문진석
진성준 · 이규민 · 송영길
소병훈 · 김진애 · 서삼석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·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, 안전·보건 조치를 소홀히

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).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